

2022. 2월 3주 언론보도 스크랩

[현장홍보]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에서 6시간 밤샘구조

G1방송

2022년 02월 14일
(강원)

강원소방, 토왕성 빙벽 조난 6시간 밤샘구조

정창영 기자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10일 설악산 토왕성 폭포에서 빙벽을 오르다 고립된 40대 2명을 6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7시쯤 빙벽에서 내려오던 중 상단부에서 로프가 바위틈에 끼면서 280M 높이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와 구조대원을 급파해 6시간 만에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설악산 토왕성 빙벽서 '오들오들'... 고립된 40대 6시간 만에 구조

강원소방본부, 야간 작전 통해 구조
"늦어도 일몰 1시간 전에 하산해야"



강원소방본부 대원이 지난 12일 오전 헬기에서 설악산 토왕성 폭포에 고립된 등산객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에 고립됐던 40대 2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새벽 토왕성 폭포 빙벽에 고립돼 있던 40대 김모씨와 권모씨를 구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설악산에 온 김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7시 빙벽등반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하산 도중 60m 가량을 내려온 뒤 로프가 바위에 끼면서 고립됐다. 로프를 절단하는 등 내려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오후 11시쯤 두 명의 발이 완전히 묶였다.

신고를 접수한 강원소방본부는 소방헬기와 한용규 소방위 등 전문 산악구조대원 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조난된 이들의 탈진과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 야간 구조작전을 서둘렀다"는 게 당시 투입된 대원들의 얘기다.

대원들은 두 차례 하강 끝에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쯤 폭포 정상으로부터 80여m 아래에 고립된 김씨 등을 찾아냈다. 폭포 아래로 하강 구조를 결정한 대원들은 절벽에서 로프를 수차례 설치와 회수를 반복하며 정상에서 150m 달하는 Y골 협곡까지 김씨 등을 데리고 이동했다.

안전하게 귀가한 구조대상자 2명은 지난 12일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심규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겨울철 산행은 체력소모가 심하므로 체력과 기상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늦어도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하산을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설악산 토왕성폭포 고립 빙벽 등반객 2명, 119 구조대 밤샘 무사 구조

“겨울철 빙벽 등반 조심합시다.”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에 고립됐던 등반객들이 119구조대원들의 밤샘 구조 끝에 무사히 구조돼 겨울철 안전 빙벽등반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0대 등반객 2명은 오전 7시부터 빙벽등반을 나섰다.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되면서 오후 7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해 하강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320m 높이의 폭포에서 60m가량 첫 하강을 마친 뒤 두 번째 하강을 위해 밧줄을 회수하려 했지만 밧줄이 바위틈에 끼이면서 절벽에 고립됐다.

오후 11시쯤 신고를 접수한 강원소방은 등반객들의 탈진과 저체온증을 우려해 야간임에도 소방헬기와 산악구조대원 5명을 급파했다. 헬기로 폭포 상단에 내린 구조대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친 하강 끝에 2시간 만에 고립된 등반객들을 만나 우선 보온용 옷과 음료를 제공했다.

대원들은 등반객들을 폭포 정상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하강 구조를 결정, 절벽에서 밧줄을 여러 차례 설치하고 회수하기를 반복한 끝에 오전 5시 12분쯤 구조를 완료했다.

구조된 등반객 중 한 명은 지난 12일 강원소방 누리집에 ‘구조대원분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철저한 실력으로 안전한 하강을 이끌어 주셨고, 시종일관 헌신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며 산에 다니고, 다른 분들을 도울 일이 생기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며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심규상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겨울철 산행은 체력소모가 심하므로 체력을 고려해 산행하고, 기상이 나빠지면無理해서 산행하지 말고 바로 하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설악산 토왕성폭포 고립 빙벽등반객 2명 어둠속 6시간 만에 구조

강원소방 누리집에 "안전에 더 신경 쓰겠다" 감사 인사 전해



고립된 빙벽 등반객 구조에 나선 119대원들 설악산 토왕성폭포 빙벽에서 고립된 등반객들이 119구조대원들의 밤샘 구조 끝에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40대 등반객 2명은 오전 7시부터 빙벽등반을 나섰으나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되면서 오후 7시가 돼서야 정상에 도착해 하강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320m 높이의 폭포에서 60m가량 첫 번째 하강을 마친 뒤 두 번째 하강을 위해 밧줄을 회수하려 했으나 밧줄이 바위틈에 끼이면서 절벽에 그대로 고립됐다.

오후 11시께 신고를 접수한 강원소방은 등반객들의 탈진과 저체온증을 우려해 야간임에도 소방헬기와 산악구조대원 5명을 급파했다.

헬기로 폭포 상단에 내린 구조대원들은 2개 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친 하강 끝에 2시간 만에 고립된 등반객들을 만나 우선 보온용 옷과 음료를 제공했다.

대원들은 등반객들을 폭포 정상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하강 구조를 결정, 절벽에서 밧줄을 여러 차례 설치하고 회수하기를 반복한 끝에 오전 5시 12분께 구조를 완료했다.



설악산 빙벽서 구조되는 등반객 구조된 등반객 중 한 명은 지난 12일 강원소방 누리집에 '구조대원분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철저한 실력으로 안전한 하강을 이끌어 주셨고, 시종일관 헌신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는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며 산에 다니고, 다른 분들을 도울 일이 생기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며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심규상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겨울철 산행은 체력소모가 심하므로 체력을 고려해 산행하고, 기상이 나빠지면 무리해서 산행하지 말고 바로 하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악산 빙벽 고립 구조 산악인들 “헌신적 밤샘 구조 감사”

신재훈

정상서 하강 중 로프 끼임 사고
강원소방 헬기·산악구조대 투입
6시간만에 하산, 감사글 남겨



▲ 지난 11일 수 백미터 길이의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을 오르다 고립된 산악인들이 소방당국의 밤샘 구조작업 끝내 가까스로 구조됐다. 구조를 마친 구조대원들이 헬기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수 백미터 길이의 설악산 토왕성 폭포 빙벽을 오르다 고립된 산악인들이 소방당국의 밤샘 구조작업 끝내 가까스로 구조됐다.

14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쯤 40대 남성 A씨 등 2명은 토왕성 폭포 빙벽등반을 하던 중 앞서 등반하던 다른 팀의 등반이 지체돼 오후 7시쯤 폭포 정상에 도착했다. 해가 저문 탓에 곧바로 하강을 시작한 이들은 60m가량 아래로 내려온 뒤 다시 하강하려 했지만 로프가 바위 틈에 끼이는 일이 발생했다.

어쩔 수 없이 일행 중 1명이 끼인 로프를 절단한 뒤 20m 아래로 내려갔지만 로프 길이가 턱 없이 짧아 결국 260m, 280m지점에 모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소방은 고강도 빙벽 등반으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자정부터 소방헬기와 산악구조대원 5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헬기에서 내린 구조대원들은 2개조로 나뉘어 두 차례의 걸친 하강 끝에 A씨 등 2명을 발견했으며 보온피복과 음료를 제공해 응급조치를 마쳤다. 하지만 현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 폭포 아래로 하강 구조를 해야했고 구조대원들은 절벽에서 5~6차례에 걸쳐 로프를 설치, 회수하며 약 6시간 만에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2일 도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조대로서 소명의식이 없다면 추운 겨울 밤 위험한 구조활동을 할 수 없을텐데 헌신적이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글을 남겼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소방, 정월 대보름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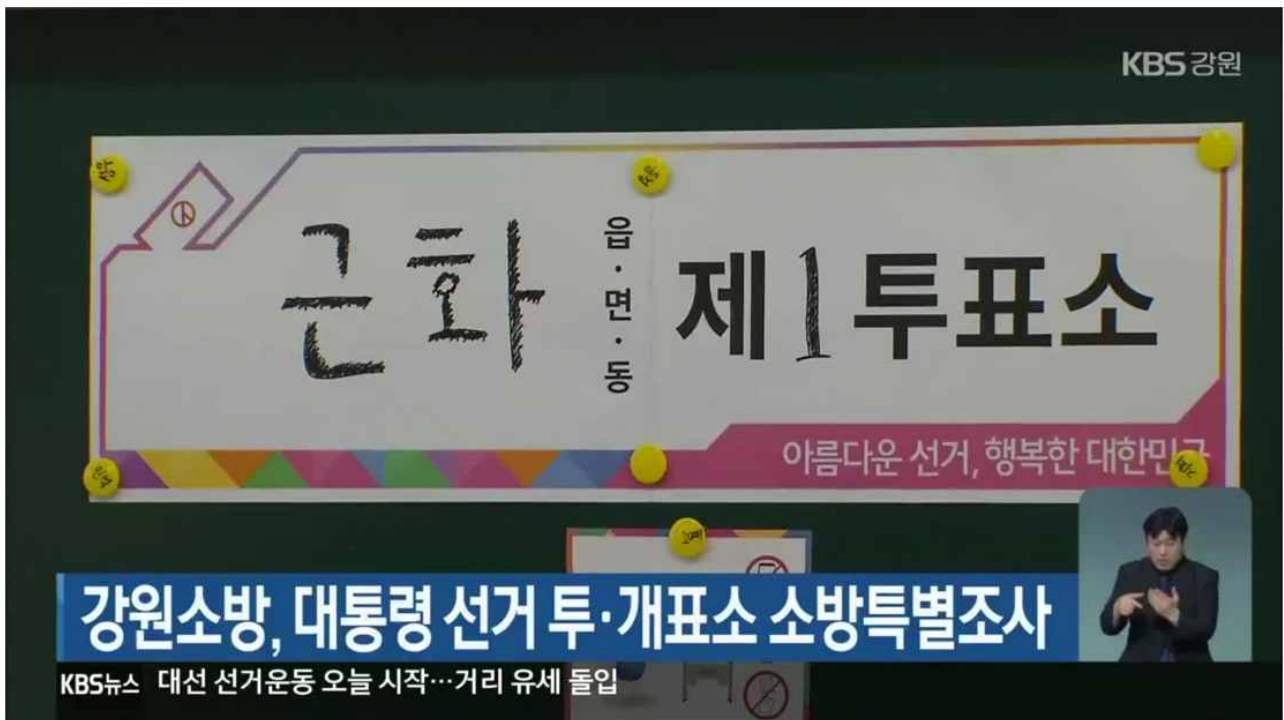
강원도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내일(16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인력 만여 명과 장비 700여 대를 투입해 화재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선 정월 대보름 기간에 55건의 화재가 발생해 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강원소방, 대통령 선거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강원도소방본부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달 25일까지 투·개표소 소방 특별조사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투표소 670곳과 사전 투표소 196곳, 개표소 18곳 등 88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 시설 작동과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江原日報

2022년 02월 16일
(종합)

대선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25일까지 3주간 진행강원도소방본부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도내 투표소 670개소, 사전투표소 196개소, 개표소 18개소 등 총 884개소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소방시설 작동 및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며 불량사항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사전투표일 전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도소방본부는 선거 전날 오후 6시부터 선거 당일 개표 종료 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개표소 내에 소방공무원 2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당일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이 투·개표소를 방문 점검한다.

용석진 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철저한 사전예방대책 추진으로 대통령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횡성소방서 직원들이 '청렴좋아'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강원소방, 청렴 실천다짐 결의대회

강원도소방본부와 도내 18개 소방서는 16일 일제히 '2022년 청렴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도내 4,30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청렴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도소방본부는 올해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문화 조성 and 직원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 FIRST!'라는 온라인 자기주도형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FIRST'는 '재미있게(Funny), 흥미롭고(Interesting), 올바르게(Rightly), 짧고(Short) 굵게(Thickly)'를 의미한다.

또한 효율적인 소방민원서비스를 위해 소방완비증명, 위험물 허가 등 민원업무처리 단계별 SMS 문자발송과 청렴해피콜도 운영한다. 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119두드림·청렴마당·고고동동'을 운영해 도민들이 손쉽게 소방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형민 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9.9*15.7)cm

강원도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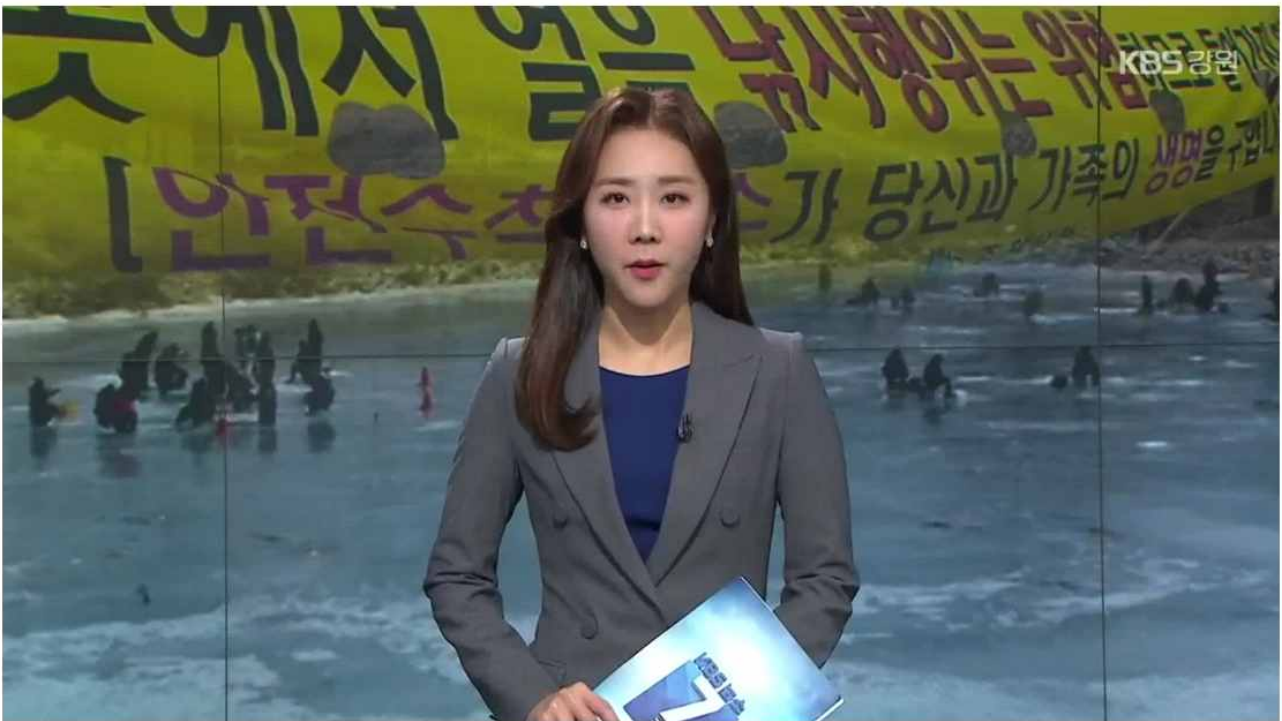
2022년 02월 17일
23면 (인물)



강원소방 2022년 청렴 실천다짐 결의대회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16일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022년 청렴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7.5*5.7)cm

[뉴스7 강원] 클로징



어느새 얼음이 얇아지는 본격적인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무려 86건의 해빙기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요.

특히 지난 1일 강릉에서는 썰매를 타던 일가족이 얼음 연못에 빠지는 등의 수난사고가 이미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얼음 출입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책보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산불대응훈련

江原日報

2022년 02월 16일
(종합)

[포토뉴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현지적응훈련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단장:심규삼)은 15일 양양군 낙산사에서 소방드론, 산불전문진화차량을 동원한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2년 02월 16일
26면 (인물)



도소방본부 동해안 대형 산불 대비 훈련 강원도 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최근 양양 낙산사에서 동해안 대형 산불진압을 위해 소방드론, 산불전문진화차량을 동원해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7.5*5.4)cm

[정책보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해빙기 인명구조 훈련

朝鮮日報

2022년 02월 16일
10면 (사회)



연습스
해빙기... 얼음 깨져 빠지면 이렇게 구합니다. 15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 저수지에서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해빙기에 대비한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2018년 1월 영동지역 신불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8.7*10.0)cm

서울신문

2022년 02월 16일
11면 (전국)



해빙기 안전이상 무! 강원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대원들이 15일 강원시 사천면 사기막저수지에서 해빙기 대비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22.6*8.7)cm